

# ASEAN 통신산업(II)

조사부

## IV. 말레이시아의 통신 산업

### 1. ASEAN에서 가장 빨리 공익사업을 민영화

#### 1) 가장 빨리 상장된 국영 통신 기업

말레이시아는 ASEAN에서도 가장 빨리 공익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타국에서는 싱가포르 텔레콤이 93년 10월, 텔레콤 인도네시아가 95년 10월에 상장한 것에 대해, 구 국영기업인 텔레콤 말레이시아는 이미 90년 11월에 상장했다.

상장시에 2,327백만 링깃(약 1,017억 엔)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텔레콤 말레이시아의 재무 본질은 대폭 개선되어 차입금/자기자본 비율은 상장 전의 89년 12월의 152%에서 90년 12월에는 30%까지 급속으로 저하했다. 그리고, 상장 후는 경영효율 개선도 진전되어 텔레콤 말레이시아의 종업원 일인당의 전화회선은 89년 12월기의 50회선에서 95년 12월기에는 116회선까지 높아졌다.

#### 2) 상장 후에 가속이 붙은 통신회선 보급

텔레콤 말레이시아는 상장후에는 재무지표의 악화를 걱정하지 않고 설비투자를 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백명당 가동전화 회선 보급율은 상장직후의 90년말의

8.9회선에서 95년말에는 17.1회선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수도 쿠알라룸푸르 주변의 회선보급율은 95년말로 백명 당 28회선에 달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보급율을 실현하고 있다. 이점이, 국영기업만으로는 회선을 부설 할 수 없어 BTO나

표 말레이시아의 통신회선 보급율

	93.12	94.12	95.12
전화회선수(만 회선)			
가정용	173.8	207.8	241.1
업무용	67.3	78.6	92.2
전국합계	241.1	286.4	333.2
쿠알라룸푸르주변	85.5	99.0	112.0
회선신장률			
가정용	15.5%	19.6%	16.0%
업무용	14.7%	16.8%	17.3%
전국합계	15.2%	18.8%	16.3%
쿠알라룸푸르주변	13.1%	15.8%	13.1%
백명당 보급회선			
전국	13.1	15.0	17.1
쿠알라룸푸르주변	23.5	25.7	28.0
디지털화율			
교환접속	88%	93%	97%
국간접속	74%	80%	84%
현대전화가입자수(만명)	34.0	57.9	97.0
백명당현대전화가입자	1.8	3.0	5.0

(주) 95년 쿠알라룸푸르 주변의 전화회선은 추정

(출처) 텔레콤 말레이시아, 셀콤사 자료에서 노무라 종합연구소 작성

BOT방식으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고정회선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디지털 화율도 95년말에는 교환접속으로 97%, 국간접속으로 84%를 달성했으며 2000년까지는 100% 디지털화가 예상되고 있다.

## 2. 제7차 5개년 계획에서의 통신정비

### 1) 2000년의 가동 회선은 600만 회선으로

96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5개년 계획에서는 통신정비를 한층 더 진척시키는 방침으로, 정부는 가동 고정회선수를 95년말의 332만 회선에서 2000년에는 558만 회선까지 높일 계획으로, 백명당의 보급 회선수는 95년말의 16.6회선에서 2000년에는 24.7회선까지 높아지게 된다. 또, 2000년에 도시부의 가동회선의 보급율을 백명당 32.7회선, 지방의 보급율을 동9.5회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실제로 회선정비를 하는 텔레콤 말레이시아의 계획은 더욱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연율 12%로 가동회선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동사는 2000년에 가동회선을 600만 회선까지 늘리고 백명당의 가동율을 28까지 높일 방침이다.

### 2) 더욱 높아질 휴대전화 보급률

정부의 미래 휴대전화 가입자의

전망은 매우 밝아, 가입자수는 95년말의 70만명(개별기업 실적으로는 97만명)에서 2000년에는 372만명까지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 숫자를 기본으로 하면, 백명당의 가입자는 95년의 3.5명에서 2000년에는 16.5명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연간 증가수는 40만명 정도이며, 실제로 앞으로 5년간 300만명이나 가입자가 증가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단, 현시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증가는 70% 전후의 신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중기적으로도 대폭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통신라이센스의 재평가 실시

말레이시아 통신행정의 제2의 특징은 신규참가기업에 대한 명확한 골조가 없이, 새로운 통신라이센스가 무질서하게 발행되었던 것에 있다. 실제로 95년까지 장거리전화에서 합계 6개사, 국제전화에서 합계 5개사, 휴대전화에서는 8개사의 라이선스가 무작위하게 발행되었다. 구 국영기업의 민영화, 신규참가기업의 촉진은 물론 환영할 만한 것이었지만, 불과 인구 2,000만명인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이익을 올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가 필요하다.

이미 발행된 라이선스가 공식적으로 취소될 리는 없지만, 행정지도의 기본책으로 기존의 사업회사

는 전 라이선스를 소유한 3사(그룹)에 매수나 합병의 형태로 집약화시킬 방침이다.

단, 기존회사는 취득한 라이선스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책정할 것이므로, 집약화 과정에서 저항이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사업에는 신규참가기업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매각의 뜻을 표명한 회사도 있지만, 장거리전화나 국제전화사업으로 진출할 예정이었던 타임텔레콤사나 티아라텔레콤사의 저항이 강해, 앞으로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4. 유력기업의 프로필

96년 6월에는 텔레콤 말레이시아에 의한 MRCB텔레콤의 매수가 발표되어, 앞으로 존속할 3사는 텔레콤 말레이시아, 셀콤, 비나리안이 유력하다고 보도되고 있다.

### 1) 셀콤(휴대·국제·장거리)

셀콤은 예초, 레논 그룹의 타임엔지니어링사와 타쥬딩 라무리씨가 통솔하는 상장기업 TRI사와의 합병 회사로 발족하여, 89년부터 휴대전화사업에 참가하여 그후 93년에 TRI사가 셀콤사를 100% 자회사로 했다. 그리고, 96년 5월에 독일 텔레콤이 TRI사 주식 21%를 647백만 US달러(약 707억 엔)로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휴대전화는 89년부터 아나로그 서비스를 개시하여, 95년 9월부터

는 디지털 GSM방식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95년말 가입자수는 67만명으로 시장지분은 69%를 소유했다. 그 후에는 국제전화 라이선스를 취득해, 벌써 국제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전화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자기부담의 트랜스미션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구 국영전력회사인 테나가내셔널과의 합병기업이 테나가사의 전력송전네트워크 위에 함께 3,000킬로의 광피버망을 98년 완성에정도로 부설중 이다. 고정회선사업 진출을 맞아 앞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인 독일 텔레콤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 2) 비나라안(장거리·국제·휴대·위성·디지털 위성방송)

이 회사는 복권회사를 운영하는 야난다 크리슈난씨가 개인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그 후, 95년에 미 US웨스트사가 20%의 주식을 230백만 US달러(약 252억엔)로 취득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내장거리통화, 국제전화, 휴대전화, 위성 운영, 디지털 위성방송 등 모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5개년 계획에서는 41억 링깃(약 1,746억엔)이 투자될 예정이다.

휴대전화는 95년 8월부터 디지털 GSM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 95년말의 가입자수는 2.6만명에 달했다. 또, 이 회사는 위성

운영의 라이선스도 획득하고 있어, 약 6억 링깃(약 256억엔)으로 96년 1월에 말레이시아의 최초 위성인 미썬트1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17개의 트랜스팜더 운영을 하고 있다. 또, 96년 10월에는 미썬트2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96년 후반부터는 미썬트위성을 이용하여, 20개 채널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회사는 전국 규모의 광피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5. 통화요금·상호접속 요금체계의 변경

96년 2월에 96년 6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요금체계가 발표되었다. 이번의 요금체계는 텔레콤 말레이시아가 93년에 신청한 이래, 3년에 걸쳐 심의된 것이다. 신체계의 골자는 시내통화 채산개선과 국제전화요금 인하이다.

텔레콤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익에 주는 영향은 중립을 하고 있지만 시내통화의 채산개선은 의의가 크다. 시내통화에서는 종래 있었던 무료범위가 축소된 것과 함께 요금 제도가 회선제에서 시간제로 크게 변경하였다.

텔레콤측은 종래보다 시내통화망 정비나 지방에서의 회선부설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요금체계나 접속요금체계를 실제 기본비용에 접근시키려고 했다. 이번 요금체계의 재평가도 그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99년 1월부터는 텔레콤 말레이시아의 네트워크의 동시접속이 시작되고 장거리 통화에서의 경합이 본격화되지만, 이 상호접속 요금체계도 기본비용을 반영한 것이라 예상된다.

## 6.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더 계획

### 1) MSC란

제7차 5개년 계획에서는, 미래 말레이시아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서 IT(Information/Technology)산업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IT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95년 8월에 공표된 MSC(Multimedia Super Corridor)계획이다. 이 계획은, 현재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건설중인 88층 쌍둥이타워 KLCC(Kuala Lumpur City Center), 장래의 부도심인 푸트라자야, 또한 97년 완성 예정으로 건설중인 수팡 신국제공항을 연결한 세로 40킬로, 가로 15킬로 지역에 최첨단의 정보인프라를 부설하려는 대담한 계획으로, 마하티르 수상이 열심히 추진을 제창하고 있다.

### 2) MSC에서 상정되고 있는 비즈니스

정부는 MSC지구를 IT산업이 입지할 테크노폴리스로써 개발할 방침이다. 97년에 신공항과 부수적인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국제적인 교통인프라가 완성된다. 또한, 푸트라자야는 초기 인구 약 30만명이

상정될 앞으로의 부도심이며, 장래는 10년 계획으로 98년부터 모든 관청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전될 예정으로, 모든 행정기능이 컴퓨터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입지나 행정기능을 배경으로 MSC에서는 연구개발시설과 기업 유치가 계획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교부도 대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3) 도입 예정인 NTT의 오픈 컴퓨터 네트워크

푸트라자야의 행정기능이 모든 컴퓨터화 되기 위해, MSC에서는 종래의 전화기능이 아닌 컴퓨터통신의 네트워크 도입이 예상되고, NTT의 오픈 컴퓨터 네트워크가 도입될 전망이다(그림). 96년 4월에

NTT, 텔레콤 말레이시아, MIMOS (Malaysia Microelectronic System 연구소) 3사의 위원회가 발족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의 그랜드디자인을 개시했다. 아직 이 계획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금후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 V. 해외투자·인프라정비가 진척된 싱가포르의 통신산업

### 1. 국제경쟁을 의식한 통신 정책

#### 1) 아시아 각국과 국제전화 요금체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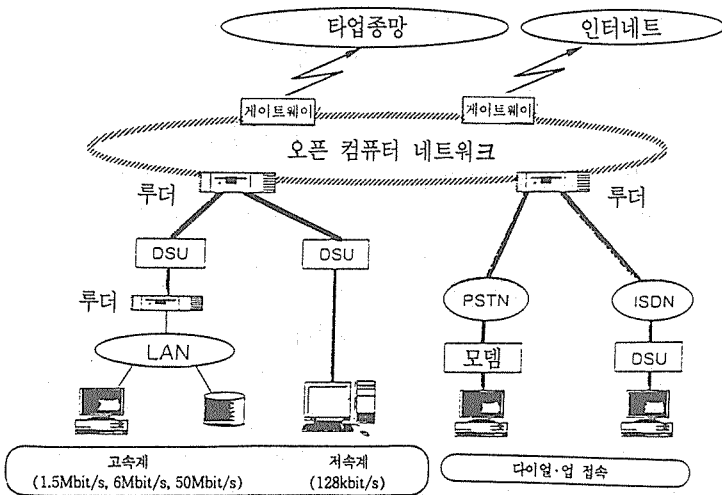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통신정책 특징은 끊임없이 아시아 각국과의 국제경쟁을 의식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국책이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교통·정보·금융의 중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시장 구성도 국제전화 수입이 전체의 52%에 달하고 있어, 타국과의 비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표) 이 때문에 TAS(싱가포르 전기통신청)는 각 분기마다 싱가포르 국제전화 요금체제를 아시아 각국과 비교해 싱가포르 요금이 평균을 밑돌도록 싱가포르 텔레콤에 권고하고 있다.

2) 고정회선사업의 자유화를 2000년으로 앞당김  
또, TAS는 96년 4월말부터 시작한 WTO(세계무역기구)의 통신 교섭 후인 5월에는 국내·국제전화 시장의 자유화를 종래의 2007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고, 그 대상으로 정부가 싱가포르 텔레콤에 15억 싱가포르달러의 보상을 거출한다고 발표했다.

#### 2) 고정회선사업의 자유화를 2000년으로 앞당김

3) 신규 산업의 골조가 명확  
=신규참가의 골조는 ASEAN에서 가장 명확·투명하여, 참가 시기나 회사수가 명확히 언급되어 참가기업도 입찰제로 결정되었다. 이 점이 말레이시아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덧붙여서 휴대전화에서는 97년 4월부터 신규참가한 개 회사만 인정되어, 입찰에 의해 케펠,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 C&W, 홍콩텔레콤의 합병회사인 모빌윈사가 참가 예정이다. 또,

그림1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너에서 도입 예정된 오픈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성



(출처) NTT

표1 싱가포르 통신시장

	93.3	94.3	95.3	96.3
〈영업수입(백만 S달러)〉				
합계	2,400	2,797	3,101	3,480
국제전화	1,376	1,555	1,670	1,812
국내전화	361	415	443	448
이동체통신	373	508	636	840
데이터통신, 회선리스 외	290	319	352	380
〈수입 신장률〉				
국제전화	11.8%	13.0%	7.4%	8.5%
국내전화	3.9%	15.0%	6.7%	1.1%
이동체통신	32.0%	36.2%	25.3%	32.1%
부설전화회선(만회선)	116.9	123.9	133.0	142.0
휴대전화가입자(만명)	12.1	17.7	23.5	30.6
백명당 전화회선	41.5	43.3	45.5	47.8
백명당휴대전화이용자	4.3	6.2	8.0	10.2
디지털화비율	80%	90%	100%	100%

(주) 이동체통신에는 기기판매대금을 포함함  
 (출처) 싱가포르 텔레콤자료에서 무라 종합연구소 작성

2000년 4월부터 국내통화, 국제통화에 참가할 기업의 입찰은 97년 제일사분기경 행해질 예정이다.

## 2. 효율 경영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텔레콤

싱가포르 텔레콤은 콜백서비스나 주변의 홍콩텔레콤, 텔레콤 말레이시아의 요금체계를 의식해 국제전화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94년 이후에는 각사의 요금인하에 대하여 국제전화요금을 4회 인하 하였고, 합계해서 주요국으로는 미국 쪽을 48%인하, 일본쪽을 37% 인하 하였다.

이러한 요금인하의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 텔레콤은 상장전부터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96년 3월기의 종업원 일인당의 부가가치액은 90년 3월기의 2배로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96년 3월기의 ROE(주주자본 세금공제 이익률)는 31%로 극히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 3. 지속적인 휴대전화 확대

### 1) 휴대전화 보급율 2000년에 20%로

싱가포르의 백명당 고정회선 보급률은 93년 3월말로 40회선을 넘어 96년 3월말에는 48회선에 달해, 95년말 일본의 48회선과 동등의 보급율이 되었다.

한편으로, 휴대전화 수요는 연율 30~35%로 확대하고 있어 96년 3월말의 백명당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10.2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왕성한 수요가 기대되는데, 싱가포르 텔레콤에서는 2000년의 보급율은 동20명에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텔레콤측은 점차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아나로그시스템은 94년 중반으로 능력이 꺾였기 때문에, 94년 3월부터는 디지털 GSM방식을 아시아에서 재빨리 도입했다. 그러나, GSM시스템도 96년 초반에 능력이 꺾여, 95년 12월부터는 마찬가지로 디지털의 PCN이 도입되었다.

또한, 일본의 PHS방식은 빌딩 실내에서만 사용이 한정되어, 옥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2) 독자적 위성휴대전화 서비스 추진

현재, 비정기 위성통신 시스템에서는 세계 규모의 LEO(저고도 궤도) 위성 휴대전화서비스가 다수 계획되고 있는데, 싱가포르 텔레콤은 99년부터 서비스가 예정되고 있는 인말세트 P사업에 6.7%의 출자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 싱가포르 텔레콤사는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인도·일본 ASEAN을 커버하는 위성휴대전화서비스를 98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총투자액은 6.4억 US달러로 위성 1기를 발사해, 통화료는 50센트/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사업자는 중국항천공업총공사나 운합통신자회사 등 중국 기업 4개사, 싱가포르 정부계 기

업, 태국의 투자회사가 참가를 정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미츠비시상사가 사업회사의 중개를 맡을 예정으로, 아시아의 휴대전화 수요확대를 얻을 계획이다.

#### 4. 해외사업의 수익 공헌 20% 목표

##### 1) 현금유출을 해외투자에 돌린 싱가포르 텔레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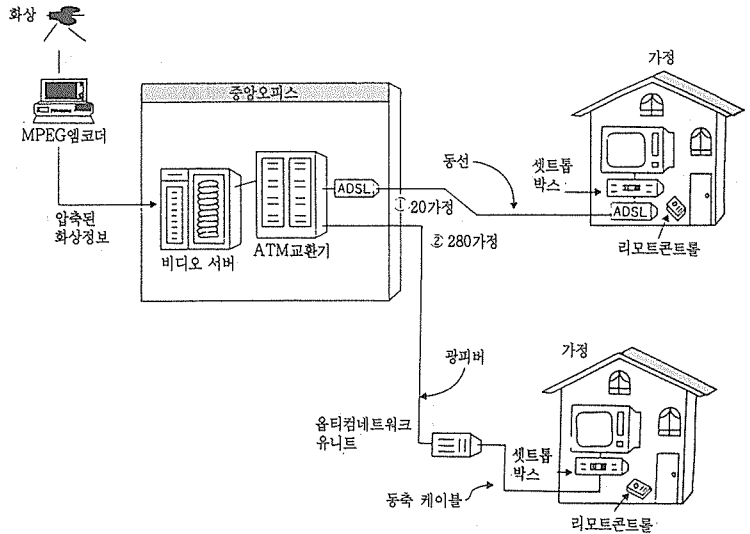
싱가포르 텔레콤의 장기적인 전략은 국내수요의 성숙화를 주시하여 해외에서 사업기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금후 5개년의 싱가포르 국내로의 설비투자는 연간 약 6억 US 달러(약 450억 엔)와 96년 3월기 현금 유출의 18.5억 S달러(약 1,400억 엔)를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이 회사는 해외 투자를 대폭으로 확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의 수익기여를 20%까지 높일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덧붙여서 96년 3월말의 해외투자 잔고는 이미 총자산의 27.6%에 달하고 있으며, 이 투자들이 수익화 하기 시작할 2000년 이후에는 해외수익기여가 20%에 달할 가능성은 높다

##### 2) 구주에서는 벨기에 국영회사 매수

투자사업 내용은 케이블 TV·이동통신·고정회선 등 여러 분야에 해당한다.

90년대 전반에는 영국에서의 CATV/전화사업, 스웨덴의 CATV 사업 등에 투자를 했었지만, 최근에

그림 ATM교환기를 사용한 Video on demand 실험 개시



는 노르웨이의 휴대전화사업으로 출자한 것 외에 96년에는 벨기에의 구 국영통신회사인 벨가콤의 주식 49.9%를 덴마크 텔레콤, 미아메리테크사와 공동으로 약 25억 US달러로 취득했다. 이 회사의 실효출자비율은 12.1%로, 출자액은 923백만 US달러에 달한다. 벨가콤사의 96년 세금공제이익은 약 3.9억 US달러가 예상되고, 동사로의 투자는 단기적으로도 채산에 균형을 이룰뿐만 아니라, 98년 1월부터 시작할 구주의 통신 자유화에의 교두보를 구축하게 되었다.

##### 3)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로 진출

아시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태국의 시나와트라 컴퓨터에 9.5%를 출자하

는 것 외에 필리핀의 제2전전인 그룹 텔레콤에 38%를 출자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96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BOT사업으로 45% 출자합병회사가 카리만탄섬에서의 40.3만 회선의 부설사업을 획득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을 커버한 호출기 합병회사를 중국 우정성, 북경시와 공동으로 설립했다.

중국에서는 외국기업이 통신운영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회사는 설비를 통신운영회사에 리스하여 수입의 일부를 받게 된다.

또, 이 회사는 중국의 제2전전인 연합통신(차이나 유니콤)사와도 제휴를 맺고 있어, 같은 방법으로 강소성 동부에서 10만 명분의 GSM방식의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납입할 예정이다.

## 5. 차세대인프라 정비

### 1) 광피버, 케이블 텔레비전 망 구상

싱가포르는 새로운 사회인프라로서 통신설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95년 3월에는 100% 디지털화를 완료했다. 또, 95년에는 중앙 상업지구의 전고층 빌딩 75%의 공단주택에 광피버망이 완성되었다. 97년에는 모든 고층빌딩, 공단주택에 광피버망이 부설될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전가정에 광피버망을 부설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SPH사가 20%, 미케이블텔레비전사가 25%, 정부지주회사 테마세크가 31%, 정부계의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사가 24% 출자한 정부계의 CATV회사인 케이블비전사는 96년 3월 시점에서 이미 10만 세대에 케이블 부설을 완료하여 98년 안에 싱가포르의

전가정 80만 세대への 부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VOD(Video On Demand) 실험 개시

이러한, 인프라를 기본으로 국가컴퓨터청(NCB)에서는 91년에 발표했던 IT2000 계획하에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 중, 싱가포르 텔레콤이 주도한 VOD(Video On Demand)의 실험이 96년 2월부터 300세대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실험에는 18개월을 요하지만, 이미 타임 워너 케이블사와 아시아에서의 VOD사업제휴를 맺고 있어, 앞으로 실제로 여러가지 내용의 수요가 실현될 전망이다.

### 3)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의 싱가포르 원 구상

96년 6월에는 마 보턴 정보상으

로부터 정부 주도의 새로운 멀티미디어·네트워크인 싱가포르 원 구상이 제창되었다. 싱가포르통신청, 국제컴퓨터청, 국가과학기술청 3청의 대책위원회로써 발족했던 이 프로젝트에 정부는 82백만 S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민간 측에서는 싱가포르 텔레콤, 케이블 비전사의 참가가 내정되고 있다.

현재 상정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제1기인 1996~2001년의 기간은 화상회의, 고속인터넷, 텔레쇼핑, 전자도서관 등 여러가지 공공·민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ASEAN에서 뛰어난 싱가포르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한층 더 정비될 가능성을 감춘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스피커 유닛과 스피커 시스템

스피커는 음향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장치를 뭉뚱그려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스피커는 엄밀한 의미에서 스피커유닛과 스피커시스템이라는 말로 구분된다.

스피커 유닛은 자석과 이를 둘러싼 코일을 비롯해 진동판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부품이다. 고음용 스피커인

트위터나 저음용 스피커인 우퍼 등은 별개의 스피커 유닛이다.

스피커 시스템은 여러 스피커 유닛을 모아 울림통 안에 배열하고 앰프와 연결할 수 있는 단자까지 갖춰놓은 것이다. 일종의 세트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스피커라는 말은 바로 이 스피커시스템을 뜻한다.

오디오업체들은 스피커 유닛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설계에 따라 스피커 시스템을 만든다.

오디오업체가 새로 개발한 스피커 시스템은 스피커 유닛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피커 유닛의 설계를 달리 한 것이다.